

LGD, 아이폰6용 디스플레이 생산

6월부터 인셀 터치패널 적용한 4.7인치 생산 ... 일본 JD·Sharp도

애플(Apple)은 2014년 5월부터 아이폰6에 투입되는 4.7인치 디스플레이를 본격 생산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공급기업은 LG디스플레이와 일본 Japan Display(JD), Sharp 등이다.

JD는 5월 도쿄 동부 Mobarā 소재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생산을 시작하고 나머지 2곳은 6월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아이폰6의 5.5인치 디스플레이 생산은 여러 달 지연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3사와 애플은 지연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6의 화면은 4.7인치와 5.5인치 2가지 종류로 아이폰5S, 아이폰5C의 4인치 화면보다 대형화된다.

아이폰6 화면에는 표준형 터치패널 필름이 아닌 인셀 터치패널 기술 적용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셀 터치패널은 아이폰5에 도입했던 기술로 화면 내장형이어서 기기를 얇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5.5인치 디스플레이에 인셀 터치패널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4.7인치 디스플레이를 먼저 생산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이 여의치 않으면 5.5인치 디스플레이에는 인셀 기술 대신 필름센서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Nippon Keizai는 앞서 애플의 아이폰 신형 모델이 이르면 9월 세계에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08>